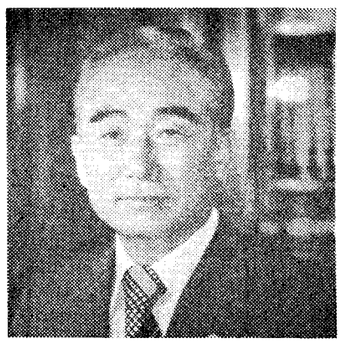


격려사

趙 永 植 이사장

오늘 본 대학교 제34회 학위수여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베풀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慶熙의 배움터에서 각고의 노력을 쌓아 오늘의 영광을 맞이한 졸업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慶賀의 뜻을 전하면서, 이제 모교를 떠나 사회 각층으로 진출하게 되는 3천여 慶熙人 여러분에게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참된 일꾼이 되어 달라는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수년간 여러분은 성실과 노력으로 학문연마에 몰두해왔고,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통을 거듭한 부모님의 세대와는 달리 발전의 속도를 더해가는 새로운 시대에 사회의 첫걸음을 딛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은 한 인간으로서 뿐만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막중한 새 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사명감 역시 여러분의 젊은 가슴속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간에 소속된 분야의 깊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도로 분화된 영역에서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도 점차 산업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졸업생들은 사회변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며 계속해서 배우는자세, 탐구하는 자세를가져야할것입니다.

졸업이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필요한 개인역량이 모두 완성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탐구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 앞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류와 역사를 포괄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야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살펴보면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행복감과 함께 인간 스스로가 창출한 과학문명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역지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상실이 몰고온 인간소외·인간부재 그리고 결코 간과하지 못할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고 있음을 알수 있읍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요, 동시에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하겠읍니다. 또 안정과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서 우리 인류사회를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인간사회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졸업생 여러분께 당부하고자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한 과정을 마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과 조국과 인류전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사회의 여러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마음의 각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모교의 입장에서 또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졸업식전의 의미는 보내는 아쉬움에만 그칠 수는 없읍니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앞으로 인격적으로나 지식면에서 좀더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경희의 배움터를 좀더 개선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말할 수 있읍니다.

이에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졸업식전에서 졸업의 영광을 찬미함과 더불어 대학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을 것입니다. 이제 등룡문을 나서는 경희인 여러분은 모교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사람 한사람이 패기에 찬 경희정신을 성실히 실천하여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일구어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떠한 어려움도 과감히 떨치고 나갈 젊은 지성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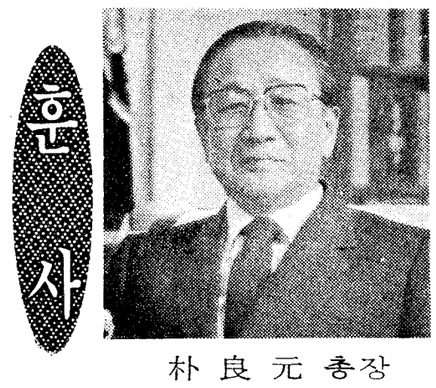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현실의 처박함을 탓하고 얽매여 냉담하기보다 그 현실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 젊음을 고민하고 노력할 때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 행동에 조국과 세계의 앞날이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여러분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진취적인 국민이 됨과 동시에 인류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유능한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졸업은 학창시절의 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장 의미있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이나 스승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식을 여러분은 자기것으로 소화하고 발전시켜 다음에 올 세대에게 더 큰 사랑으로, 인류의 앞날을 환히 비출 산 지식으로 전해주기를 여러분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한 慶熙精神이 기쁜 소식으로 모교에 전해져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신의 따뜻한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세계 이끌 젊은 지성의 역사 창조해야



훈사

朴 良 元 총장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지난 4년동안 형설의 공을 쌓아 오늘의 영광을 차지한 2천9백91명의 졸업생 개개인에게도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도약의 새 출발을 하고 있읍니다. 대학의 졸업이란, 단순한 교육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교육의 장이 전개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본인은 지적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전문지식을 응용하고자 할 때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음을 알게될 것입니다. 환언하면 관념적인 「유토피아」가 그대로 지상에 구현될수 없으며 또 추상적인 이론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될 수도 없다는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나 국가에는이념과 현실이 공존하며 희망과 좌절이 항상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예로운 졸업생여러분!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볼때 이제 여러분은 사회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생소한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경희의 전당에서 학습을통해 배운지식과 생활환경의 원만한연결을통해 인격의 완성을기하고, 지혜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진리탐구에 몰두할때보다도 더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돌이켜보건데 금년으로 개교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희는, 참으로 어려운 역사를 엮어왔다고 할수 있겠읍니다. 수많은 시련과 사학공통의 운영상의 문제점등 고난의 과거를 꾸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마다 우리는 경희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모든 경희가족들의 단결과 협조로써 이를 슬기롭게 이겨낸 빛나는 역사도 지니고 있읍니다.

철학자 골드 스미스가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에 있는것이 아니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고 말한 것처럼 우리 경희는 실패나 역경을 곧 성공의 발판으로삼아왔던 것이며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2만여명의 학생과 유수한 교수진 그리고 3개의 방대한 캠퍼스를지닌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주변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읍니다.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위한 국가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있고 급격한 물질문명의 발달로인한 정신문명의 파괴나 물질미화주의에서 생겨난 그릇된 윤리관과 가치관의 회복은 이시대 우리모두의 과제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경희인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희인 여러분들은 경희의 동산에서 「창조적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 협동」이라는 경희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흔히 Idea의 시대라고합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서 승리자가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인생의 목표를 세운 이후에는 어떤 역경도 물리칠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아집과독선을 버리고 협동정신을 가지고사회에봉사한다면그험은어떤어려운문제도 능히풀어갈수있을 것입니다.

이제정든 등룡문을 나서는 졸업생여러분!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이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갈 조국과 겨레의 주역들입니다.

이 나라의 자산은 오직 젊은 인재들인 여러분들 뿐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행동에 이민족의 향방이 달려있는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 이라는 책에서 「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전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응전의 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고 했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와 화합이 요청되는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창조적 지성의 선구자가 되어 국민 모두가 「나」를 초월하여 「우리」로써 뭉치고 「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사명감을 확고히 발휘하도록 솔선수범하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모교의 교시는 사회에 그뿌리를 내려갈 것이며 밝은 사회, 살기좋은 사회는 건설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금년은 본교 이사장님의 발안으로 UN에서 제정한 「세계 평화의 해」 입니다. 경희인의 보람과 긍지를 더해주는 평화의 해에 졸업생 여러분들의 가슴으로부터 진정한 평화의 싹이 터서 가정과 사회 나아가서는 온 누리에 평화의 물결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캠퍼스를 떠나지만 여러분들의 숨결은 경희의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며 경희정신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살아 함께 호흡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아가는동안 사회의 격변과 혼란으로 소용돌이 칠때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한 길만으로 살아가기 바라며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훈사에 가름합니다.

인내와 용기, 지혜로 거센 역경 이겨 나가길…

自律 속에서 自己정립을

—다시 졸업식을 맞으며

사설

쉬지도않고 속도의 가감도없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사람들은 마디를 만든다. 이 시간의 마디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각기 크고 작은 의미를 갖고 우리들의 생애에 짙고 옅은 자취를 남긴다.

오늘 본교에서 거행되는 졸업식도 이러한 시간의 마디의 하나, 아주 중요한 마디의 하나인 것이다. 그동안 기울여 온 학문연구를 위한 노력과 정성이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이 결실은 앞으로의 모든 삶을 풍요하게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전환을 맞은 졸업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졸업을 맞으면서 졸업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만감이 엇갈릴 것이다. 대학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의 부푼 꿈과 희망, 그리고 낭만에의 기대도 새삼스럽게 되살아나고 졸업식과 함께 마감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아쉬움과 뉘우침,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냉엄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에서 착잡하게 뒤엉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업은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졸업이 갖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연습이나 실험이 허용되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활은 동질적인 학우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이질적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나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질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립시켜가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그 결과만이 냉엄하게 평가되는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숙을 뜻하는 것이기에 그 성숙을 위해 몇가지 간절한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가능한한 빨리 새로운 사회생활에 잘적응해 주기를 바란다. 대학생으로서 가졌던이상과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있을 터이지만, 현실속에서 보람과이상을 실현시키고자하는 노력과 지혜를 습득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언제나 성실하게 생활해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사회가 설사 각박하고 격변하고있을지라도 성실한 사람이 설수있는 땅은 언제나 마련될것이다. 성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세째로 인내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딪힐 난관과 실망을 인내속에 극복하는 슬기를 지녀야한다. 이것이 곧 인내이며 참된 용기이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것도 용기이지만, 남이하는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먼곳으로만 느끼고 비판하던 기성세대와 기성사회에의 문턱에 있다. 지금까지의 실망과 불만, 비판들을 회고하고 내적인 승화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를 창조하는것만이 참된 용기와 발전일 수 있다. 사회의 변화가 갖는 점진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단거리선수의 거친 호흡보다는 장거리선수의 안정된 발걸음으로 일생동안 부단한 자기혁신의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할 것이다. 끌려가거나 밀려다니지 말고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획득한 학문의 기반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가야 할것이다.

그러한 자기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 여러분 각자의 위치는 확고해질 것이며 역할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만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물론 사회를 살찌우게될 것이다.

끝으로 母校와 후배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건,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경희의 이름은 일생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기서 계속 배우고 자라며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다시한번 졸업을 축하하면서 졸업생 여러분의 건강과 영광된 앞날을 기원한다. 각고의 세월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임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며 지속적인 노력과 성실이 있을 때에만 신은 따뜻한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어쩔 수가 없어>

학사보고

36년간 학사 40,058명, 석사 5,535명, 박사 747명등 인재배출

▲1949. 5. 12 신흥대학(2년제) 假認可로 설립 (법정과, 중국어과, 체육과)
▲1951. 5. 18 조영식박사 재단인수, 이사장으로 취임
▲1952. 2. 3 신흥대학 (4년제)승격 인가
▲1953. 10. 12 서울캠퍼스 현 교지 확보
▲1954. 2. 9 대학원 설립인가
▲1955. 2. 28 신흥대학교 (종합대학) 설립 인가 (문리대, 법대, 정경대, 체육대)
▲1955. 5. 12 대학주보 창간
▲1956. 6. 7 조영식총장 중신 이사 취임
▲1957. 10. 15 체육대학관 준공
▲1958. 4. 8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설치 인가
▲1959. 8. 1 제1과학관 준공
▲1960. 3. 1 경희대학교로 교명변경
▲1960. 8. 3 음악대학관 준공
▲1960. 9. 20 여학생회관 준공
▲1961. 10. 10 오정명여사 재단이사장 취임
▲1965. 1. 9 사범대학 신설
▲1965. 4. 27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사회동양의과대학 흡수 병합 결의
▲1965. 5. 18 대학장제도 설치
▲1965. 12. 17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신설
▲1966. 3. 14 경영행정대학원 설립 인가
▲1966. 11. 12 종합박물관 개관
▲1967. 1. 7 사범대학관 준공
▲1967. 8. 23 정경대학관 준공
▲1968. 6. 13 제2차 세계대학총장회의 본교주관으로 개최
▲1969. 2. 20 공과대학 신설
▲1969. 8. 30 제2과학관 준공
▲1971. 4. 8 사범대학관 증축
▲1971. 5. 18 학생회관, 시청각교육원 준공
▲1971. 10. 5 경희의료원 (의과부속병원, 치과부속병원, 한의과부속병원)개원(1천베드)
▲1972. 1. 28 교육대학원 설립
▲1972년. 11. 8 세계 최초로 루약물 침술마취수술 성공
▲1973. 3. 1 치과대학 승격
▲1973. 9. 25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 개최
▲1973. 12. 14 동서의학 암연구센터 발족
▲1974. 1. 20 한국 최초로 한국학박사과정 신설
▲1975. 5. 9 신입생 선발 전기로 전환
▲1974. 6. 6 인공관절대치수술 국내최초로 성공
▲1975. 10. 28 밝은사회운동 결성대회
▲1975. 12. 17 국내 최초로 대퇴부 절단환자 재접합 수술 성공
▲1976. 3. 30 인류사회 재건연구원 개설
▲1976. 6. 3 제1차 국제학술심포지움개최
▲1976. 10. 27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개최
▲1977. 12. 27 장학사 삼의원 개원
▲1978. 3. 1 음대, 체대 실험대학으로 운영
▲1978. 6. 13 동양 최초, 유일의 자연박물관 개관
▲1978, 10, 7 2부대학 신설인가(정원 2백명)
▲1979, 1, 19 수원대학 신설허가
▲1979. 10. 29 로마클럽과 인류사회 재건연구원 합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 12. 29 IAUP부설 국제평화연구소 개소
▲1980. 3. 8 수원대학 캠퍼스 첫 입학식 거행
▲1980. 12. 11 행정대학원 설립
▲1981. 2. 20 국내 최초 인터페론 생산
▲1982. 10. 5 수원캠퍼스 각 학부 단과대학 승격 개편안 정식 인가
▲1983. 4. 9 컴퓨터센터 개관
▲1983. 9. 22 수원캠퍼스 체육교육관 개관
▲1983. 11. 29 평화복지 대학원 6개학과 1백명정원으로 신설인가
▲1984. 4. 2 대학주보 지령 800호 발간
▲1986. 2. 24 제34회 학위수여식